

『인천안목(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The Publishing, Acceptance, Printing and Comparison of Woodblock-Print Versions of *Ren-Chaun-An-Mu*(『人天眼目』)

송 정 숙 (Song, Jung-Sook)**

정 영 식 (Jeong, Young-Si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인천안목』의 판본 비교:
유간기본을 중심으로 |
| 2. 『인천안목』의 편찬 | 6. 맺음말 |
| 3. 『인천안목』의 수용 | <참고문헌> |
| 4. 『인천안목』의 간행: 수경선사 | |

< 초 록 >

송대 『인천안목』의 편찬과 한국에의 수용, 북경에서의 간행과 조선에서 판각된 유간기본의 판본 등에 대해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송나라의 회암지소가 선의 종지를 편찬한 『인천안목』이 간행된 후 여러 간본이 유통되어 혼란을 초래하자, 같은 임제종 대혜파인 물초대관이 1258년에 이를 다시 수정[重修]하였다. 이를 원나라의 치우(治祐)가 1317년에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순서로 배열하여 다시 간행[重刊]하였다. 그 근거는 육조(六祖) 혜능(慧能) 이후의 사승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의 『선학대사전』에 의하면, 원래 『인천안목』은 3권본이었는데 홍무 원년(1368)에 간행된 조선본에서 6권으로 되면서 <종문잡록>과 <용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 간본이 후대간본의 기본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현존하는 명(明)속장본, 만(卍)속장본, 대정신수대장경본 등에 수록된 『인천안목』은 모두 6권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1368년 간행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 전래하는 간본은 모두 3권본인데도 <종문잡록>은 들어있고, <용담고>는 없다. 홍무 원년(1368)본은 오가(五家)의 배열을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우본의 순서를 다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간본은 홍무원년본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선승들은 운문종을 마조도일 계통에서 나왔다고 간주하여 중시하였고, 반면에 위양종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다고도 해석된다.

현존하는 『인천안목』 가운데 최고(最古)본은 1357년 북경의 수경선사에서 강금강이 간행한 것을 회암사에서 번각한 목판본이다. 강금강은 고려 출신 환관으로 자정원의 우두머리인 자정원사였다. 『인천안목』을 중간한 수경선사는 고려 충선왕이 원 황실과 밀접한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salzini@pusan.ac.kr)

접수일: 2011년 12월 16일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수사에 시주를 많이 하고, 대장경도 봉안했음을 볼 때, 고려수경사(高麗壽慶寺)는 경수사(慶壽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진다. 국내에서 인출한 『인천안목』 가운데 유간기본 5종 모두 ‘至正17年丁酉(1357)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는 간기를 싣고 있고, 어미의 차이만 있을 뿐 글자의 모양과 10行20字로 판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357년 간행된 수경선사간본의 번각본 내지 수경선사간본을 저본으로 한 회암사간본의 번각본 또는 중수본임을 알 수 있다.

要語: 인천안목(人天眼目), 선종오가(禪宗五家), 강금강(姜金剛),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 회암사간본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ublishing, acceptance, printing and comparison of woodblock-print versions of *Ren-Chaun-An-Mu*(人天眼目).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Ren-Chaun-An-Mu* was written by Hui-Yan-Zhi-Zhao(晦巖智昭) in Sung(宋) Dynasty, China. In 1258 Wu-Chu-Dai-Guan(物初大觀) revised, and in 1317 Zhi-You(治祐) changed the order of the five schools of Chinese Zen(禪宗五家) in sequence of the realm of Buddhism(法系) as Lin-Ji School(臨濟宗), Wei-Yang School(滄仰宗), Cao-Dong School(曹洞宗), Yun-Men School(雲門宗) and Fa-Yan School(法眼宗). According to a Dictionary of Zen Buddhism(禪學大辭典), in 1368 *Ren-Chaun-An-Mu* was published in 6 volumes in Korea. In this volume, the realm of Buddhism(法系) was rearranged to the Lin-Ji School, Yun-Men School, Cao-Dong School, Wei-Yang School, and Fa-Yan School, and the Zong-Men-Za-Lu(宗門雜錄) and Long-Tan-Kao(龍潭考) were added. However presently in Korea, only the book in 3 volumes is included within the realm of Buddhism(法系) at Lin-Ji School, Yun-Men School, Cao-Dong School, Wei-Yang School, Fa-Yan School, and Zong-Men-Za-Lu. This means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respects Yun-Men School. The oldest volume of *Ren-Chaun-An-Mu* printed in Korea was the one printed at Hoiam temple(檜巖寺) in 1395. This volume was re-engraved from *Ren-Chaun-An-Mu* printed at Shou-Ging-Chan temple(壽慶禪寺) in Peking, China in 1357, and arranged by Kang Kum-kang(姜金剛), an eunuch who was originally from Goryeo. In Korea, 5 woodblock-print versions of *Ren-Chaun-An-Mu* with the printer's imprints have been discover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se versions, it is concluded that they were originated from *Ren-Chaun-An-Mu* which was printed at Shou-Ging-Chan temple.

Key words: *Ren-Chaun-An-Mu*(人天眼目), the five schools of Chinese Zen(禪宗五家), Kang Kum-kang(姜金剛), Shou-Ging-Chan temple(壽慶禪寺), Hoiam Temple(檜巖寺)

1. 머리말

현재 고려본의 모습은 고려시대에 인출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고려대장경』, 『속장경』 등과 고려본의 번각본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개판(開板)이든 번각이든 조선 초기에 인출 또는 판각했다면 금속활자본은 물론이고 목판본이라도 희소성이 있고 상태가 좋으며 완질이면 현재 국가문화재인 국보 내지 보물로 지정되고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 간본은 대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다.

『인천안목(人天眼目)』의 경우도 조선 초기에 인쇄되었지만 고려시대 판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1395년(태조 4)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인출된 『인천안목』을 문화재청에서 보물 제1094호로 지정하면서 그 가치를 기술했던 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 6년(1357)에 원나라에서 활동하던 강금강(姜金剛)이 간행한 책을 원본으로 삼아, 조선 태조 4년(1395)에 무학대사가 회암사에서 다시 새겨 펴낸 것이다. … 고려시대의 판본을 기초로 조선시대에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귀중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조선 전기의 불교학은 물론 서지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 판본은 권말(卷末)의 지문(識文)과 이색(李穡)의 발문(跋文)에 기록되어 있듯이, 원(元)나라 경사(京師)에 세운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우리나라의 진성군(晋城君) 강금강(姜金剛)이 중간(重刊)한 판본(版本)을 조선조 태조(太祖)의 왕사(王師)였던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입수하여 회암사(檜巖寺)에서 번각(飜刻)한 것이다.¹⁾

이러한 『인천안목』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겼다. 『인천안목』은 누구에 의해서, 왜 편찬되었는가? 전래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에 수용되면서 어떤 변용이 있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인천안목』은 3권본과 6권본이 있는데, 국내에서 인출된 것은 3권본이다. 이는

1) “인천안목”,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0940000,11> [2011년 6월 2일 접속].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고려인 강금강(姜金剛)이 누구이기에 원나라 수도에서 이 책을 인출했는가? 원나라의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는 강금강과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인천안목』을 인출했는가? 일본 간행본을 제외하면 국내에 전래하는 『인천안목』 가운데 간기가 있는 판본은 5종이 전한다. 회암사 간본과 이 판본들의 선후 관계 및 계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선종의 법계인식과 관련하여 불교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인천안목』의 간행과 유간기 판본들의 판본비교 등과 관련해서는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천안목』의 편찬

『인천안목』의 뜻은 인간·천상 일체가 중생의 안목이 된다는 것으로, 남송(南宋) 때 선종의 청안조사(靑眼祖師) 회암지소(晦巖智昭, 생몰년 미상)가 편찬하였다(<사진 1> 참조).



<사진 1>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 권수제면

중국 선(禪)에 있어서 오가(五家), 즉 임제종(臨濟宗)·위양종(潯仰宗)·조동종(曹洞宗)·운문종(雲門宗)·법안종(法眼宗)의 중요(宗要)를 알리기 위해서 각 파의 선덕(先德)이 제창한 종강(宗綱)을 내세우고, 여기에 여러 조사들의 유고(遺稿), 잔계(殘偈), 칭제(稱提), 수시(垂示) 등을 수록한 것이다. 이를 1258년(남송 보우 6) 물초대관(物初大觀, 1201~1268)이 중수(重修)하였고, 원나라 때인 1317년(원 연우 4) 무천천봉(撫川天峯)의 치우(治祐)가 교수하였으며, 사승(師承)에 따라서 순서를 바르게 해 임제종·위양종·조동종·운문종·법안종의 순서로 중간(重刊)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 간행한 「인천안목」은 임제종·운문종·조동종·위양종·법안종의 순서로 되어 있다.²⁾

편찬자인 회암지소(晦巖智昭)는 임제종(臨濟宗) 대혜파(大慧派)에 속하며, 절옹여염(浙翁翊琰)의 제자이다. 선문 오가(五家)의 종지(宗旨)의 강요(綱要)를 모아 만년(晩年)에 천태산(天台山) 만년사(萬年寺)에서 분류 정리해 「인천안목」을 편집하고, 1188년(남송 순희 15)에 자서(自序)했다.

지소가 지은 서문에 의하면, ‘일찍부터 五宗의 강요를 궁극해 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유편(遺篇)을 모으고, 선승들의 칭제(稱提)를 듣고 계송(偈頌)을 확보하여 자료가 많았는데, 만년인 1188년에 천태산 만년사에서 비로소 그것을 정리하여 간행하고 「인천안목」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인천안목」의 내용은 임제종의 강요인 사요간(四料揀), 삼구(三句), 삼현삼요(三玄三要), 사빈주(四賓主)와 운문종의 강요인 운문삼구(雲門三句), 일자관(一字關), 조동종의 강요인 조동오위(曹洞五位) 등 오종의 강요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선승들의 염제(拈提,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 계송 등을 실고 있다. 임제의 사요간, 임제삼구 등 「인천안목」이 실고 있는 각파의 종지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상 많은 선승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다. 지소는 이러한 선승들의 해석을 소개함으로써 오가의 종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인천안목」이 지소에 의해 간행된 후 여러 간본이 유통되어 혼란을 초래하자, 같은 임제종(臨濟宗) 대혜파(大慧派)인 물초대관(物初大觀 1201~1268)이 1258

2) 駒譯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編, 『新版 禪學大辭典』(東京: 大修館書店, 1985),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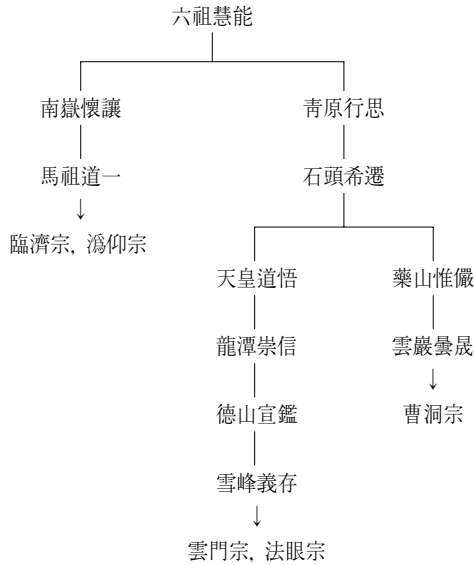
년(남송 보우 6)에 이를 다시 수정[重修]하였음을 <중수인천안목후서(重修人天眼目後序)>에서 밝히고 있다. 또 오가(五家)의 배열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었는데, 지소가 편찬한 원본에 오가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를 원나라의 치우(治祐)가 1317년에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순서로 배열하여 다시 간행[重刊]하였다. 치우의 <대원연우중간인천안목후서(大元延祐重刊人天眼目後序)>에 의하면, ‘인천안목의 유포본이 많고 베껴 쓴 지 오래되어 착오가 없을 수 없다. 사본이 많은데 서로 같지 않아 피차에 득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으며, 잘못된 것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원본(元本)의 배열에서 오종이 그 사승(師承)의 차례가 잘못되어 고쳐 바로 잡았다. 먼저 임제와 위양을 배열하였는데, 그 이유는 양종이 모두 남악회양(南嶽懷讓)과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동, 운문, 법안의 순서로 배열하였는데, 이 3종은 모두 청원행사(靑原行思)와 석두희천(石頭希遷)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³⁾’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치우가 임제, 위양, 조동, 운문, 법안의 순서로 배열하였으며, 그 근거는 육조(六祖) 혜능(慧能) 이후의 사승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치우 이전에는 이와는 배열순서가 달랐던 것이다.

문제는 임제종, 위양종의 순으로 하느냐 아니면 임제종, 운문종의 순으로 하느냐인데, 이것은 종파의 사승문제와 관련되므로 선종사(禪宗史)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 선종의 분기점이 되는 육조(六祖) 혜능의 제자 중 유력한 사담으로 남악회양(南嶽懷讓)과 청원행사(靑原行思)가 있는데, 남악회양의 제자인 마조도일(馬祖道一)과 청원행사의 제자인 석두희천(石頭希遷) 계통에서 오가(五家)가 전부 나와서 중국 선종이 융성하게 되었다. 즉, 마조도일에게서 임제종과 위양종이 나왔고, 석두희천에게서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상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3) 治祐, “大元延祐重刊人天眼目後序”, <人天眼目>, 『大正新修大藏經』, 제48책(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1976), 333.

「인천안목(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그림 1> 오가 법계도(五家 法系圖)

위 <그림 1>에서 보듯이, 석두희천의 법계는 천황도오 → 용담승신 → 덕산선감으로 이어지며, 여기에서 운문종과 법안종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찍이 당나라의 구현소(丘玄素)가 지은 <천왕도오선사비(天王道悟禪師碑)>⁴⁾에 의하면, 용담승신의 스승은 천황도오이고, 이 천황도오는 마조도일의 제자라는 기록이 있다. 즉, 天皇道悟 이외에 따로 天王道悟가 있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용담승신의 스승인데, 이 천황도오는 마조도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비문의 기록이 사실이어서 마조도일 → 천황도오 → 용담승신의 법계라면, 운문종과 법안종은 마조도일 계통에서 나오게 되고, 석두희천 계통에서는 조동종만이 나온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용담승신의 스승이 천황도오인가 천왕도오인가를 둘러싸고 예부터

4) “天王道悟禪師”,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view/794964.html>> [2011년 11월 6일 검색].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천왕도오는 실제했던 인물이 아니며, 이 주장은 운문종을 선양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 보고 있다. 『인천안목』 6권본의 제6권 마지막에 실려있는 <용담고(龍潭考)>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3. 『인천안목』의 수용

일본의 『선학대사전』에 의하면, ‘원래 지소가 편찬한 것은 3권본으로 그것은 1317년에 치우가 중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368년(명 홍무 원년)에 간행된 조선본에서는 6권으로 되고, 오가의 순서도 임제, 운문, 조동, 위양, 법안으로 개정되었으며, 권 5~6에 <종문잡록(宗門雜錄)>과 <용담고(龍潭考)>가 첨가되었다. 이것이 1586년(명 만력 14)에 간행된 명속장본(明續藏本), 만속장본(亘續藏本) 및 현행 유포본의 기초가 되었다’⁵⁾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인천안목』은 3권본이었는데 1368년에 간행된 조선본에서 6권으로 되고 <종문잡록>과 <용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 간본이 후대간본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명속장본, 만속장본, 대정신수대장경본 등은 모두 6권본의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1368년에 간행된 조선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新纂禪籍目錄』의 ‘人天眼目條’에 의하면, 1368년에 간행된 조선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권 1책. 명, 홍무원년. 이색(李穡)의 발문이 있음(조선본). 최남선씨 소장. 권5, 6은 <종문잡록>과 <용담고>.’⁶⁾

이상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생각된다.

1. 『인천안목』이 1368년(명 홍무 원년)에 6권으로 재판집되면서 <종문잡록>과 <용담고>가 추가된 것인데, 이 홍무 원년본은 중국에서 간행된 것인가?

5)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編(1985), 998.

6)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錄』(東京: 日本佛書刊行會, 1964), 367.

아니면 고려에서 간행된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현재 한국에 전래하는 간본은 모두 3권본임에도 불구하고 <중문잡록>은 들어있고, <용담고>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홍무 원년본은 오가(五家)의 배열을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우본의 순서를 다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간본은 홍무원년본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왜 이 순서를 따르고 있을까?

양덕사⁷⁾ 소장의 「인천안목」을 보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도 임제, 운문, 조동, 위양, 법안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물초대관(物初大觀)의 <중수인천안목후서(重修人天眼目後序)> 앞에 오종의 법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 운문종에 대해 마조도일(馬祖道一) → 천왕도오(天王道悟) → 용담승신(龍潭崇信)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운문종이 마조도일 계통에서 나왔음을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제, 위양, 조동, 운문, 법안설을 주장한 치우의 <대원연우중간인천안목후서(大元延祐重刊人天眼目後序)>도 삭제되어 있고, <용담고(龍潭考)>도 존재하지 않으며, 위양종의 법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보면, 조선의 선승들은 운문종을 마조도일 계통에서 나왔다고 간주하여 중시하였고, 반면에 위양종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다고도 해석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오늘날의 학계의 의견은 운문종을 석두희천 계통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왜 조선의 선승들은 운문종을 마조도일 계통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천안목」은 오가 중에서도 임제종을 위주로 한 문헌이므로 조선시대에도 많이 읽혔다. 또, 임제종의 종지인 삼현삼요(三玄三要), 임제삼구(臨濟三句)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전개되었다. 조선후기의 백파거선(白坡巨璇, 1767~1852)은 선의 지침서인 「선문수경(禪門手鏡)」에서 ‘선문의 어구를 탐구하고자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소재.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인천안목』, 『오종강요(五宗綱要)』,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을 선구로 삼으면, 이 삼구(三句)의 뜻이 밝아져서 의심이 없을 것이다⁸⁾고 하였다. 즉, 선의 종지를 알고자 하면 『인천안목』, 『오종강요』, 『선문강요집』을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五宗綱要(禪門五宗綱要)』는 조선의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의 저술이고, 『선문강요집』은 고려의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頌, 1206~?)의 저술이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이 『오종강요』와 『선문강요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임제종의 임제삼구, 삼현삼요와 운문종의 운문삼구이다. 나아가, 임제삼구, 삼현삼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조선후기의 백과공선(1767~1852)과 초의의순(草衣意恂, 1786~1866) 등에 의해 전개된 선 논쟁을 일으킨 주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이상의 3권본과 6권본 이외에도 1703년(청 강희 42)에 인거(仁炬)가 중정(重訂)한 『증집인천안목(增集人天眼目)』은 2권으로서, 그 내용도 현행 유포본과 현저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인천안목』은 1368년(명 홍무 원년)의 조선본을 기초로 한 간본이 현행 유포본이기는 하지만 많은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4. 『인천안목』의 간행: 수경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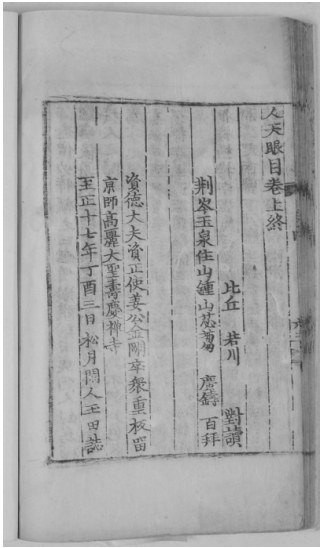
국내에 전래하는 『인천안목』은 6권본이 아니라 권상, 권중, 권하의 3권으로 이루어진 3권본이다. 권상의 마지막과 권하의 마지막에

比丘 若川 對讀
 荊岑玉泉住山鍾山苾芻 廣鑄 百拜
 資德大夫資正使姜公金剛卒衆重板留
 京師高麗大聖壽慶禪寺
 至正十七年丁酉三日松月閑人玉田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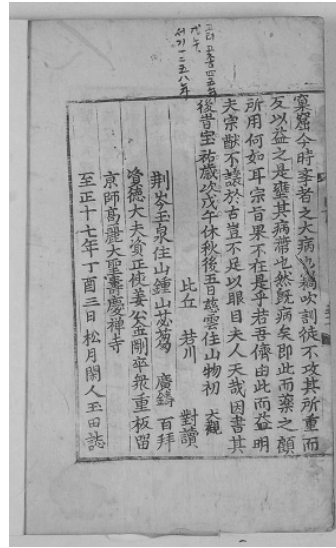
라는 기록이 보인다(<사진 2>, <사진 3> 참조).

8) 白坡巨璇, 『禪門手鏡』.

「인천안목(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사진 2> 「인천안목(양덕사 소장)」 권상(卷上)의 끝장: 원판 간기



<사진 3> 「인천안목(양덕사 소장)」 권하(卷下)의 끝장: 원판 간기

이를 볼 때 「인천안목」은 중국 형주(荊州) 옥천사에서 광주(廣鑄)가 판각한 사실이 있고, 이 「인천안목」을 원나라의 수도[京師]인 북경에 있는 고려수경선사(高麗壽慶禪寺)에서 강금강(姜金剛)이 1357년(원 지정 17)에 중간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안목」을 중간한 이는 ‘자덕대부 자정사 장공 금강(資德大夫資正使姜公金剛)’이다. 자덕대부(資德大夫)는 1369년(공민왕 18)에 개정된 문산계(文散階) 품계에 의하면, 고려 중2품직 문관이다. ‘자정사(資政使)’란 ‘자정원사(資政院使)’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정원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원 지배기에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갔던 기씨 처녀가 궁녀가 되고, 이어서 제2황후에까지 오르게 되자, 창설한 기관이 자정원(資政院)이다. 자정원은 휘정원(徽政院)의 후신으로 제2황후궁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⁹⁾ 그렇지만 사실은 기황후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

9) 기황후(奇皇后): 원나라 순제(順帝)의 황후로 본관은 행주(幸州). 아버지는 자오(子敖)이고, 고려 말의 권신 철(鐵)의 누이동생이며 북원(北元) 소종(昭宗)의 어머니이다. 1333년(충숙왕 복위 2)에 원나라의 휘정원(徽政院)에 있던 고려 출신 환관 고용보(高龍普)의

려는 의도에서 창설한 기황후의 친위부대 같은 성격의 직속기구였다. 자정원을 중심으로 몽친 기황후와 자정원사가 된 고려출신 강금강을 비롯한 환관들은 원과 고려의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려사』 등에서 강금강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 권57, 지11 <경상도 안동부>조에 의하면, 강금강은 안동부사람이다. “충혜왕(忠惠王)은 내시[宦者] 강금강(姜金剛)이 원(元) 나라에 들어가 특별히 수고한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 고향인 퇴곶부곡(退串部曲)을 올려 내성현(奈城縣)으로 삼았고, 뒤에 다시 길안부곡(吉安部曲)을 올려 현(縣)으로 삼았다.”¹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권 개성부 상(開城府上)에 의하면, “이곡(李穀)의 새 종[新鐘] 명문에, 지정(至正) 6년(충목왕 2년, 1346) 봄에 자정원사(資政院使) 강금강(姜金剛)과 좌장고부사(左藏庫副使) 신예(辛齎)가 천자의 명으로 금폐(金幣)를 가지고 와서 종을 금강산에서 주조하였다.”¹¹⁾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恭愍王) 1에 의하면, 을미 4년(1355, 원 지정 15) 9월에 원나라에서 자정원사(資政院使) 강금강길사(姜金剛吉思)를 보내어 영안왕대부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¹²⁾

『고려사』 권38 세가 38, 공민왕 4년(1355) 9월 임인(壬寅)에 원나라가 자정원사(資政院使) 강금강길사(姜金剛吉思)를 보내와 영안왕대부인(榮安王大夫人)을 향연하고 겸(兼)하여 어향(御香)을 내렸다.¹³⁾

위 기록들을 볼 때, 강금강은 경상도 상주목 안동부 사람으로 고려말 원나라에

추천으로 궁녀가 되어 순제의 총애를 받게 되자 정후인 다나시리(答納失里)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1335년에 다나시리의 일족이 축출되자 황후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바엔(伯顔)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339년 황자 아이유시리다라(愛猶識理達臘)를 낳았으며, 이듬해 2월에 바엔세력이 몰려나게 되자 4월에 드디어 제2황후로 책봉되었다. 황후가 된 뒤 곧 반대세력을 몰아내고 휘정원을 자정원(資政院)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를 배경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다(이용범, “기황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0) 『고려사』 卷57, 志11 地理2 경상도 상주목 안동부.

11) 『신증동국여지승람』 卷4 개성부(開城府) 上.

12)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恭愍王) 1, 을미 4년(1355) 9월 임인(壬寅).

13) 『고려사』 권38 세가 38(공민왕 4년(1355) 9월 임인(壬寅)).

서 활동한 환관이었으며, 고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관련 문헌을 조사했더니, 강금강은 기황후의 측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황후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또 한 명의 환관으로는 강금강길사(姜金剛吉思)라고도 불리운 강금강(姜金剛)이라는 환관이 있었다. 『고려사』 세가에 의하면, 그는 공민왕 4년(1354) 9월에 자정원사로서 고려에 파견되어 기황후의 모친인 이씨 부인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이때 공민왕이 그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¹⁴⁾

『고려사』 기철 열전에 의하면, 기철 등이 처단되자 이씨는 근심으로 병석에 누웠다고 한다. 당시에는 고려에서 서북면으로 장병들을 파견하여 원나라에 대한 경비를 하면서 다만 봄·가을 두 차례 조공을 보내어 연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서신 왕래가 매우 적조하였다. 그래서 기황후의 아들인 원나라의 황태자가 강금강길사를 보내어 이씨를 데려 가려고 했으나 이씨가 굳이 사양하였다. 그 후에도 이씨 부인을 데려가기 위하여 사신을 세 번이나 왕래하였다. 황태자는 또 관리를 파견하여 의복과 음식을 보냈으며 강금강길사는 계속 고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씨를 공양하였다.¹⁵⁾

그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더 이상의 활동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기황후와 황태자의 신임을 받아 고려에 와서 기황후의 모친을 모시는 일을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금강이 『인천안목』을 중간(重刊)한 곳이 경사(京師)에 있는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이다. 그러면 고려대성수경선사가 있는 ‘경사(京師)’란 어디일까? 경사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수도를 말한다. 그런데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라면 ‘수경선사’ 앞에 ‘고려’라고 일컫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강금강이 환관으로 원나라에서 자정원사로 활동하였으므로 경사는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燕京), 즉 지금의 북경(北京)을 가리킨다고 보아진다.

수경선사는 어떤 절일까? 그리고 고려와의 어떤 인연으로 ‘수경선사(壽慶禪寺)’라는 명칭 앞에 ‘고려’를 붙였을까?

14) 위와 같음.

15) 『고려사』 권31 열전 제44, 반역5 기철.

왕정(王頌)의 “중연임제: 원대도로경수사사술증(宗衍臨濟: 元大都路慶壽寺史述證)”¹⁶⁾에 의하면, 경수사는 금나라 세종(1161~1189)의 재위시기에 창건되었으며, 원나라 때부터 존숭 받았다. 이 사찰의 주지 가운데 중화장(中和璋), 해운간(海雲簡), 가엄랑(可庵朗), 필엄만(畢庵滿), 서운안(西雲安), 지연(智延), 부흠(溥洽) 등과 같이 명망 있는 고승들이 있었다. 중국에서 임제종의 정맥을 전승하고 있었다. 경수사는 원대 불교의 총림으로서 규모도 방대하고, 심후한 전승이 있어서 학식이 높은 선비들이나 혈통이 고귀한 사람들이 많이 시주하였다. 원대 이후에 경수사는 황실 행사의 중심에 있는 사찰이었다. 『원사(元史)』 권77 <제사지국속구례(祭祀志國俗舊禮)>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 경수사에서 불사를 시작해서 16일 과했는데, 제왕과 후비, 공주들이 참여했다. 『설루선생집(雪樓先生集)』 권18 <대경수사 대장경 비명(大慶壽寺大藏經碑銘)>에 의하면, 경수사에 고려의 충선왕(忠宣王)도 보시를 했는데, 1305년(원 대덕 9)에는 충선왕이 경수사에 대장경을 봉안했다고 한다.

충선왕은 충렬왕의 맏아들이요, 모친은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충선왕은 대도에서 진왕 감말라의 딸인 보타시린(寶塔實憐) 공주와 혼인했다. 이는 발리안 예케치 황태후와 제국대장공주가 주선한 듯하다. 이 결혼은 충선왕이 원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무종 옹립에 충선왕이 가담함으로써 이후 고려의 정국은 원의 정국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인천안목』을 중간한 ‘수경사(壽慶寺)’를 ‘고려수경사(高麗壽慶寺)’라고 ‘고려’를 붙인 것은 충선왕을 비롯한 고려의 왕과 귀족들이 시주를 많이 한 인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중국 항주에 있는 고려혜인사(高麗慧因寺)를 들 수 있다.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중국 송나라에 유학하였을 때인 1085년 9월, 항주(杭州) 혜인사(慧因寺)에서 진수정원(晉水淨源)에게 화엄학을

16) 王頌, “宗衍臨濟: 元大都路慶壽寺史述證,” 『西域南海史地研究』 4集(2009. 12), <<http://www.eurasianhistory.com/data/articles/a02/2031.html>> [2011년 10월 5일 접속].

수확하고, 불교전적 7,500권을 기증하였다. 1086년 4월에는 다시 항주 혜인사에 와서 정원법사의 가르침을 들으며 1,000여 권의 불교서적을 들고 고려로 돌아왔다. 의천은 귀국하여서도 정원법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1087년 항주 혜인사에 황금으로 서사한 『화엄경(華嚴經)』 3종의 번역서 총 180권을 이 절에 보내어 황제의 평강을 축원하자, 정원법사는 큰 누각을 지어 봉안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원법사를 화엄종 ‘중흥교주(中興教主)’라 존중하고,¹⁷⁾ 의천이 머문 이 절은 ‘혜인고려화엄교사(慧因高麗華嚴敎寺)’로 개명되었고, 이후 고려사(高麗寺)로 약칭되었는데,¹⁸⁾ 혜인고려사나 고려혜인사로도 불리운다.¹⁹⁾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의 외손자이자 진왕의 사위인 고려 충선왕이 원 황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수사에 시주를 많이 ‘했고, 대장경도 봉안했’던 것으로 보아 경수사는 고려와도 남다른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수사(慶壽寺)와 수경사(壽慶寺)는 글자만 바뀌었을 뿐 이름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인천안목』을 중간한 고려수경사(高麗壽慶寺)는 경수사(慶壽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진다.

5. 「인천안목」의 판본 비교: 유간기본을 중심으로

국내에 전래하는 「인천안목」 가운데 간기가 있는 유간기본의 선후관계 및 계통을 파악하기 위해 판본들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7) 辛奎卓, “古代 韓中佛敎交流의 一考察: 高麗의 義天과 浙江의 淨源,” 『동양철학』(한국동양철학회) 제27집(2007), 237-238.

18) 조영현, “표해록 통해본 중국 강남과 한반도의 교류,” 중국속의 한국사 기행,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zlee1941&logNo=80136803480>> [2011년 10월 12일 접속].

19) “항주 고려혜인사에 가본 이야기,” <<http://blog.naver.com/idaero47?Redirect=Log&logNo=10041734135>> [2011년 10월 25일 접속].

<표 1> 「인천안목」 판본의 구성 비교

구성 요소		양덕사 소장본	회암사간본	송광사간본	서대사간본	문수전 중수본
위치	요소					
卷首	插圖	天輪之圖 외 3장	×	×	×	×
卷上	序文	晦巖의 自序	晦巖의 自序	晦巖의 自序	晦巖의 自序	晦巖의 自序
	本文	臨濟宗·雲門宗	臨濟宗·雲門宗	臨濟宗·雲門宗	臨濟宗·雲門宗	臨濟宗·雲門宗
	卷末	至正17年(1357) … 玉田誌	至正17年(1357) … 玉田誌	至正17年(1357) … 玉田誌	至正17年(1357) … 玉田誌	至正17年(1357) … 玉田誌
卷中	本文	曹洞宗·滂仰宗·法眼宗	曹洞宗·滂仰宗·法眼宗	曹洞宗·滂仰宗·法眼宗	曹洞宗·滂仰宗·法眼宗	曹洞宗·滂仰宗·法眼宗
卷下	本文	宗門雜錄	宗門雜錄		宗門雜錄	宗門雜錄
卷末	後序	物初의 重修後序	物初의 重修後序	物初의 重修後序	物初의 重修後序	物初의 重修後序
	刊記	至正17年丁酉(1357) 三月松月閑人玉田誌	至正17年丁酉(1357) 三月松月閑人玉田誌	至正17年丁酉(1357) 三月松月閑人玉田誌	至正17年丁酉(1357) 三月松月閑人玉田誌	至正17年丁酉(1357) 三月松月閑人玉田誌
	後敘	×	×	嘉靖8年(1529)松花堂의 重修後敘	×	×
	跋文	×	洪武 乙亥(1395) … 李穡謹誌	洪武 乙亥(1395) … 李穡謹誌	×	洪武 乙亥(1395) … 李穡謹誌
		×	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 … 妙嚴尊者無學	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 … 妙嚴尊者無學	×	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 … 妙嚴尊者無學
	藏板記	×	檜嶺寺留板	嘉靖8年(1529)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板	嘉靖9年庚寅(1530)春暮 全羅道珍山地西臺山西臺寺開板	乾隆36年辛卯(1771)冬清涼山文殊殿無爲子振虛重修日用之寶耳
항자수		10行20字	10行20字	10行20字	10行20字	10行20字
소장처 ²⁰⁾		계, 단, 동, 산언	고, 국, 구, 산, 삼	고, 동, 송, 용, 전	계, 용	(재)아남문고
비고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6호	보물 제1015호 (구인사) 보물 제1094호 (삼성출판박물관)			보물 제640호

위 <표 1>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인출한 「인천안목」 유간기본 5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권 상중하의 3권본이며, 오가(五家)의 순서가 임제종-운문종-조

20) 소장처는 다음의 약어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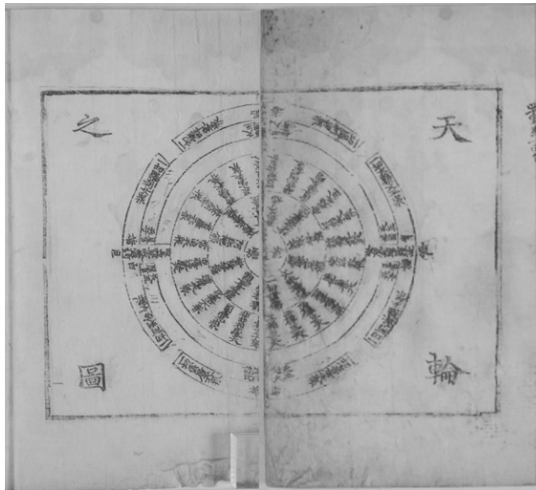
계: 계명대 동산도서관, 고: 고려대 도서관, 구: 단양 구인사, 국: 국립중앙도서관, 단: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동: 동국대 중앙도서관, 산: 산기문고, 삼: 삼성출판박물관, 송: 순천 송광사 정보박물관, 언: 연양 양덕사, 용: 담양 용화사 목담유물관자료실, 전: 전북대 도서관.

「인천안목(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동종-위양종-법안종의 순서로 되어 있고, 권하에는 <용담고>는 없이 <종문잡록>만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운문종을 선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5종 모두 ‘至正17年丁酉(1357)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는 간기를 싣고 있고, 어미의 차이만 있을 뿐 글자의 모양과 10行20字로 판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357년 수정선사간본의 번각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간기본 5종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에만 유일하게 권수에 천륜지도(天輪之圖), 지륜지도(地輪之圖), 법계지도(法界之圖), 약사회단(藥師會壇)의 삽도가 4장 존재한다(<사진 4> 참조). 하지만 회암사간본의 권말에 있는 이색의 발문과 무학의 증명, ‘회암사유판(檜嶺寺留板)’이라는 장판기(藏板記)는 없다.



<사진 4> 「인천안목」 권수도: 천륜지도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은 3권2책의 목판본으로 ‘資德大夫資正使姜公金剛卒衆重板留 京師高麗大聖壽慶禪寺 至正十七年丁酉(1357)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는 원판 간기만 있을 뿐 이 판본에 대한 간기가 없어 언제 어디서 번각했는지

변각한 시기나 장소는 알 수 없다. 하지만 6권본이 아니라 3권본이므로 회암사간본보다 연대가 빠른 홍무 원년(1368)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간행년이 보물로 지정된 1395년의 회암사간본보다 올라갈 수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을 1395년에 변각한 회암사간본과 비교하면, 회암사간본은 어미가 상하향혹어미로 거의 일정하고, 광곽이 상하단변, 좌우쌍변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377년에 중국 연경에서 간행한 『인천안목』의 원형을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은 어미가 상하향혹어미와 상하내향혹어미가 혼재되어 있는 점이나 광곽이 사주단변과 상하단변, 좌우쌍변이 혼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편이 많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은 수경선사간본을 저본으로 회암사간본이 인출된 1395년 이후에 판각된 목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6호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안목』과 양덕사 소장본을 비교하면, 충북 유형문화재 『인천안목』은 권상(卷上)만 있고 권중과 권하가 없는 1권1책의 결본인데 비해, 양덕사 소장본은 권상·중·하의 3권2책이 모두 있는 완결본이다. 권상만을 비교하여 보면,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어미가 상하향혹어미와 상하내향혹어미가 혼재되어 있는 점이나 광곽이 사주단변과 상하단변, 좌우쌍변이 혼재되어 있는 것 등이 장별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동일한 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는 권수에 삽도가 양덕사 소장본에는 있는데 비해 충북 유형문화재에는 실려 있지 않다.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일본인지의 여부를 단언할 수 없지만 목록상으로 볼 때, 양덕사 소장 『인천안목』과 동일한 판본이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회암사간본은 1367년 원관간기와 이색의 발문, 무학의 증명, 회암사 장판기 등을 통해 볼 때, 북경의 수경선사에서 강금강(姜金剛)이 인출한 책을 저본으로 1395년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에서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이 주도하여 판각된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인천안목』 가운데 인출한 연도가 가장 앞선다.

이 회암사간본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권 상·중·하로 된 3권본[3권1책]이므로 1368년(홍무 에 인출되었다는 6권본과는 계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미는 상하향후어미이다. 현재 회암사간본은 보물 제1015호, 제1094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1015호, 제1094호는 동일한데, 보물 제1094호는 권3 마지막장의 마지막 면이 잘려나가고 없다. 따라서 이색의 발문만 있고, 뒷면의 ‘檜嶠寺留板’이라는 장판기는 없다.

(3) 송광사간본은 1357년의 원판간기 다음에 嘉靖 8(1529)년에 송화당(松花堂)이 쓴 <중수인천안목후서(重修人天眼目後敍)>가 있고, 1395년 이색의 발문과 무학의 증명, 이어서 ‘嘉靖8年(1529)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板’이라는 장판기가 있다. 이는 회암사간본을 저본으로 1529년(중종 24)에 송광사에서 판각한 번각본임을 의미한다.

(4) 서대사간본의 경우는 1357년의 원본간기까지는 동일하지만, 이색의 발문과 무학의 증명, 장판기는 없다. 권말의 “嘉靖9年庚寅(1530)春暮 全羅道珍山地西臺山西臺寺開板”이라는 간기로 미루어, 1530년(중종 25)에 전라도 진산 서대사에서 개판했음을 알 수 있다. 글자의 모양과 판식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수경선사간본을 저본으로 판각된 번각본으로 파악된다.

(5) 문수전 중수본인 보물 제640호로 지정된 『인천안목』은 1367년 원판간기와 이색의 발문, 무학의 증명에 이은 권말의 중수기 “乾隆36年辛卯(1771)冬清涼山文殊殿無爲子振虛重修日用之寶耳”로 미루어 볼 때, 회암사간본을 번각한 책판을 1771년(영조 47) 청량산 문수전에서 중수(重修)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인출하여 책판이 마모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개판(開板)은 책판을 완전히 새로 판각하는데 비해, 중수(重修)는 마모되거나 훼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1771년(영조 47) 청량산 문수전에서는 전래하는 『인천안목』의 책판 가운데 마모되거나 훼손된 곳만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인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1395년 회암사간본과 판식과 글자의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수경선사간본을 저본으로 한 회암사간본을 번각한 책판을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국내에 전래하는 『인천안목』은 모두 3권본이며, 유간기본 5종 모두 ‘至正17年丁酉(1357)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는 간기를 실고 있고, 사주의 변란과 어미의 차이만 있을 뿐 글자의 모양과 10行20字로 판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357년 간행된 수정선사간본의 번각본 내지 수정선사간본을 저본으로 한 회암사간본의 번각본 또는 중수본이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송대 『인천안목』의 편찬과 한국에의 수용, 북경에서의 간행과 조선에서 판각된 유간기본의 판본 비교 등에 대해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송나라의 회암지소가 선의 종지를 편찬한 『인천안목』이 지소에 의해 간행된 후 여러 간본이 유통되어 혼란을 초래하자, 같은 임제종(臨濟宗) 대혜파(大慧派)인 물초대관(物初大觀, 1201~1268)이 1258년(남송 보우 6)에 이를 다시 수정[重修]하였다. 또 오가(五家)의 배열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었는데, 지소가 편찬한 원본에 오가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를 원나라의 치우(治祐)가 1317년에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순서로 배열하여 다시 간행[重刊]하였다. 치우는 원본(元本)의 배열에서 오종이 그 師承의 차례가 잘못되어 그것을 고쳐 바로 잡았다. 그 근거는 육조(六祖) 혜능(慧能) 이후의 사승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치우 이전에는 이와는 배열 순서가 달랐을 것이다.

일본의 『선학대사전』에 의하면, 원래 『인천안목』은 3권본이었는데 1368년에 간행된 조선본에서 6권으로 되고 <종문잡록>과 <용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 간본이 후대간본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명속장본, 만속장본, 대정신수대장경본 등은 모두 6권본의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1368년에 간행된 조선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 전래하는 간본은 모두 3권본임에도 불구하고 <종문잡록>은 들어있고, <용담고>는

없다. 홍무 원년본은 오가(五家)의 배열을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우본의 순서를 다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간본은 홍무원년본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선승들은 운문종을 마조도일 계통에서 나왔다고 간주하여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위양종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다고도 해석된다.

한국에 전래된 「인천안목」은 1357년 북경의 수경선사에서 강금강이 간행한 것의 번각본이 전하고 있다. 강금강은 고려 출신 환관으로 기황후의 친위부대 같은 직속기구인 자정원(資政院)의 우두머리인 자정원사(資政院使)로서 원나라와 고려의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의 외손자이자 진왕의 사위인 고려 충선왕이 원 황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수사에 시주를 많이 하고, 대장경도 봉안했음을 볼 때, 경수사는 고려와도 남다른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수사(慶壽寺)와 수경사(壽慶寺)는 글자만 바뀌었을 뿐 이름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인천안목」을 중간한 고려수경사(高麗壽慶寺)는 경수사(慶壽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진다.

국내에서 인출한 「인천안목」은 모두 권 상·중·하로 된 3권본이며, 오가(五家)의 순서가 임제종-운문종-조동종-위양종-법안종의 순서로 되어 있고, 권하에 <용담고>는 없이 <종문잡록>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문종을 선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간기본 5종 모두 ‘至正17年丁酉(1357)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는 간기를 싣고 있고, 사주의 변란과 어미의 차이만 있을 뿐 글자의 모양과 10行20字로 판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357년 간행된 수경선사간본의 번각본 내지 수경선사간본을 저본으로 한 회암사간본의 번각본 또는 중수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불교사상사적인 접근과 서지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교문헌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연구한다면 불교문헌 연구가 한층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분야와 소통하면서 서지학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학 분야에서 서지학이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禪門手鏡」.

「신증동국여지승람」.

「人天眼目(양덕사 소장)」.

“人天眼目.” 『大正新修大藏經』 第48冊 諸宗部 5. 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 51(1976).

椎名宏雄. “高麗版『人天眼目』とその資料.”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44(1986. 3). 325-359.

정구선. 『중세 시대의 환관과 공녀』. 국학자료원, 2004.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編. 『新版 禪學大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5.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錄』. 東京: 日本佛書刊行會, 19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朴相國 編著.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1987.

辛奎卓. “古代 韓中佛教交流의 一考察: 高麗의 義天과 浙江의 淨源.”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제27집(2007). 229-259.

王 頌. “宗衍臨濟: 元大都路慶壽寺史述證.” 『西域南海史地研究』 4集(2009. 12).
<<http://www.eurasianhistory.com/data/articles/a02/2031.html>>
[2011년 10월 5일 접속].

조영현. “표해록 통해본 중국 강남과 한반도의 교류.” 중국속의 한국사 기행.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zlee1941&logNo=80136803480>> [2011년 10월 12일 접속].

金斗鍾. “高麗板本에 對하여.”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1집(1962. 5). 2-6.
“항주 고려혜인사에 가본 이야기.”

<<http://blog.naver.com/idaero47?Redirect=Log&logNo=10041734135>>

[2011년 10월 25일 접속].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

